

# 출판기획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미국 아나폴리스의 세인트 존스대학은 컴퓨터언어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학은 여전히 인문과학에 뿌리를 둔 대학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컴퓨터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공과대학으로 변하는 것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학은 고대 그리스어강좌도 계속하고 있다. 물론 그리스어강좌가 오늘날 쓰일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어가 인문과학의 뿌리를 기억시키고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노력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지도 모른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환상적인 발전은 사람들에게 낯이 더 사용의 편리함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때문에 유인되는 경향도 없지 않은 터이다.

그러나 그리스어 배우기를 고집하는 세력 역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촉감이라는 것이 없다. 내것으로 내손에 쥐고 만질 수 있다는 소유감이 부족하다. 하긴 모든 컴퓨터자료를 프린트해서 가질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서류와 같은 삭막한 자료일 뿐이다.

읽기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때문에 책은 계속해서 중요하리라는 논지가 성립된다. 여기에 컴퓨터를 통해서도 읽기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타난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이 프린트로 뽑아내고 있는 것은 화면에서의 읽기가 책으로써의 읽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가벼운 책임기가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의 싸움에서 책은 가장 허약한 매체다. '살아남은 책'을 제값받고 파는, 소부수 고가의 최고급 도서를 만드는 도전에 나서는 일이 오히려 옳을지도 모른다.

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가. 책의 존재는 점점 더 분명하게 인문학의 뿌리, 정신의 기반, 마음의 단련, 창조적 상상력의 훈련 등의 이유에서 그 가치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연유로 필요한 내용의 책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전망에서 보면 근자에 우리 출판기획은 너무 큰 빈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비정하게 말하자면 '살아남은 책'들은 점점 간행이 줄고 있다. 이것은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불행의 징조이다.

지난 몇년새 많은 출판사들이 출판시장을 사회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출판기획을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언뜻 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 마케팅전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결국 현실점 시중의 세속적 관심사의 반영이 될 뿐이다. 주간지 기사의 확대판일 수도 있고,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TV문화의 부연설명일 수도 있는 범위와 수준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세계 어느 국민도 그리스어를 스스로 배우고자 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향가를 다시 읽거나 이두문을 새로 배우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출판기획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간단한 지적 하나로 묵살될 수 있다. 누가 그것을 읽을 것인가. 그러나 그런 책을 내는 동안 출판사는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은 명쾌하고 현실적이다.

하지만 같은 현실 속에서 이미 잘 팔리는 책들이 변하고 있다. 단순한 화제, 그저 재미있는 내용, 아기자기한 아이디어, 화려한 모양내기 책들의 분야에서도 독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누구나 찾아낼 수 있다.

이제 이 책들이 계속되려면 아주 싼값의 보급판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의 삶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일상의 시간 속에 가벼운 책임기가 얻어낼 수 있는 시간의 싸움에서 책은 가장 허약한 매체이다.

이 모든 시간을 압도하는 무기만이 시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책'을 제값받고 파는, 그러니까 오히려 소부수 고가의 최고급 도서를 만드는 도전에 나서는 일이 옳을 것이다. 이 관점이 지금 우리 출판기획에서 간과되고 있다. ❖

# 출판저널

통권 제189호/1996년 4월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디자이너—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일곱달 넘겨의 해당호부터 막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필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북한말을 알면 북한이 보인다!!

북한말 2

조재수 씀·신국판·608쪽·값 22,000원

## 남북한말 비교사전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중국 동포의 조선말과 소련 동포의 고려말을 비교한 최초의 **민·족·어 사전**.

【부록】북한, 중국, 옛소련 동포들의 문학 작품 목록

나그네(남편의 육전 지방말)/ 보렘(부조의 중국 교포말)/ 김각질·놀각질·달아나각질·웃각질·신각질/ 사냥바치·총바치·귀염바치·주눅바치·호사바치... 새록새롭다·에모쁘다...

우편 주문을 받습니다.

송금 즉시 연락주시면 책을 보내드립니다. (예금주:이근술/국민은행:068-05-0017-994 /우체국:010231-0051590-12)

서울시 중구 필동3가 15 문화빌딩 401호  
전화:268-8891 팩스:268-8893

##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 채용: 1)리처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 “出版社 賣買 · 仲介”

# 出版社買入

판권 · 필름 · 원고  
잔고 · 재고매입

## 斗星文化

서울·종로구 숭인2동 202-10 (서용빌딩 207호)  
TEL : (02) 232-0348~9  
FAX : (02) 233-0403